

## 관동별곡(關東別曲) / 정철

### ☑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기행 가사, 정격 가사

**성격** 서정적, 지사적, 서경적

**운율** 3(4)·4조, 4음보 연속체

**제재** 내금강과 관동 팔경

**주제** 금강산, 관동 팔경에 대한 감탄과 연군지정 및 애민 사상

**특징** ① 영탄법, 대구법, 생략법 등을 활용함.

②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뛰어난 언어적 기교가 나타남.

**연대** 조선 선조

**출전** 《송강가사》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그 경치에 대한 감탄과 정감을 노래한 가사이다. 관리로서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우국, 연군, 애민의 정과 개인으로서의 풍류 사이에서의 갈등을 꿈을 통해 해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감탄사, 생략법, 대구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의 정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으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작가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우리말의 유창성과 독특한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아 가사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데, 김만중은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이 작품을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원문	현대어 해석
<p><b>1. 은둔 생활 중 관찰사에 임명됨(부임의 여정)</b></p> <p>江江湖호애 病병이 깃퍼 竹岳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東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추門문 드리 다라 慶慶會會 南남門문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 나니 玉玉節절이 알페섯다. 淸淸平平丘丘驛驛 말을 가라 黑黑水水슈로 도라드니, 蟾蟾岫岫江江은 어디메오, 糶티岳岳이 여기로다.</p>	<p>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泉石膏)이 되어, 은서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 없다.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p>



<p>5. 진혈대에서의 조망</p> <p>小소향향爐노 大대향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정 陽양寺사 眞진歌혈臺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廬녀山 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기야 다 뵈나다. 어와, 造造化화 翁翁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冚부蓉용을 고갯는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명을 박차는듯, 北북極극을 괴왓는듯. 呑呑 시고 望望高高臺대,  외로울샤 穴혈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무슨 일을 사로리라 千천萬만劫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른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잊는가</p>	<p>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여산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또,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하구나.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그 지조가 놀랍구나.)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같은 높은 기상을 지닌(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겠는가?</p>
<p>6. 개심대에서의 조망</p> <p>開開心심臺대 고터 올라 衆衆香향城성 바라보며, 萬만二이千천峰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하니 峰봉마다 맺쳐 있고 窅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 우리의 빼어남이여!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여 정답기도 정답구나!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아마도 없으리라.)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으니,)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p>	<p>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 우리의 빼어남이여!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여 정답기도 정답구나!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아마도 없으리라.)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으니,)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p>

<p>7. 화룡소를 보며 선정에의 포부를 다짐</p> <p>圓원통통골 가는길 獅사자자峰봉을 차자가니, 그 알        폐 너러바회 化화龍龍쇠 되여세라. 千千年年 老노龍        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晝晝夜야의 흘녀 내여 滄        창海해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        雨우를 디런는다.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        여스라</p>	<p>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化龍沼)가 되었구나. 마치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같이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저 용은)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        려 내려무나.(선정의 포부가 나타나 있다.)</p>
<p>8. 십이폭포의 장관</p> <p>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다리 佛불頂頂臺대 올라하니, 千천尋尋        絶絶壁벽을 半반空공애 세여 두고, 銀銀河하水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이서 뵈가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 두 구비, 내 보매난 여려히라.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廬녀山        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p>	<p>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썩은 외        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조물주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거기에        십이 폭이 걸렸는데)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서 베풀어 걸어 놓았으니,        산수도경에는 열 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        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폭포가 여기보        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p>
<p>9. 동해로 가는 감회</p> <p>내금강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        로 가자구나.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        짓는 산새는 나와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감정이        입),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하며,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풍악을 울리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        (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해변의 해당화 핀 꽃밭으        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        찌 아느냐?</p>	<p>내금강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        해로 가자구나.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        루에 오르니,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짓는 산새는 나와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감정이입),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하며,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풍악을        울리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해변의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        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p>

<p>10. 총석정의 장관</p> <p>金금난窟굴 도라드러 叢叢石석亭亭 올라하니, 白백玉 옥樓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셔 잇고야. 工공슈의 성녕인가, 鬼귀쥬부로 다다만가 구태야 六육面면은 머어슬 象상똥똥고.</p>	<p>금란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옥황 상제가 거쳐하던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 서 있는 듯하구나. 옛날 중국의 명장(名匠)인 공수(工)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 똥는가?</p>
<p>11. 삼일포에서의 사선 추모</p> <p>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로 차자가니, 丹단晝晝는 宛宛然然하되 四사仙仙은 어데 가니. 예사흘 머은 後후의 어데 가 또 머물고. 仙仙遊遊潭담 永永郎郎湖호 거기나 가 잇는가. 淸淸澗澗亭亭 萬만 景景臺대 몇 고데 안똥똥고,</p>	<p>고성을 저 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그 남쪽 봉우리 벵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p>
<p>12. 의상대에서 본 일출의 광경</p> <p>梨梨花화는 발셔 디고 楸동새 슬피 울 제, 洛洛山山 東東畔畔으로 義義相相臺臺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祥祥雲雲이 집피는 동, 六육 龍龍이 바되는 동, 바다해 떠날 제는 萬萬國國이 일 위더니, 天天中中의 티뜨니 纛纛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隄隄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詩仙仙은 어데 가고 咳咳唾唾만 나맛나니. 天天地地間間 壯壯한 別別 자셔히도 할셔이고.</p>	<p>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닥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이백의 시구 인용). 이백은 어디 가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p>

<p>13.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 양속</p> <p>斜峯陽陽 峴현山산의 턱턱을 으니발와 翫우蓋개芝지 輪륜이 鏡鏡浦포로 내려가니, 十十里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카장 떠더 시니, 泐泐도 자도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孤고舟舟 解 해纜람하야 亭亭子자 우헤 올라가니, 江江門문橋교 너른 겨테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從從容容한다 이 氣 기像상, 闊闊遠遠원하다 더 境境界계, 이도곤 가잔 데 또 어디 잇닷 말고. 紅紅粧粧古古事사랄 현사타 하 리로다. 江江陵陵능 大대都都護護호風風俗俗속이 도흘시고, 節節孝孝효旌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比屋屋옥可가封 봉이 이제도 잇다할다.</p>	<p>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밟아,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십 리나 뽀뽀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이며,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흥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기도 하구나.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총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준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 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p>
<p>14. 죽서루에서의 객수</p> <p>眞眞珠珠珠館館 竹竹岫岫西西樓樓 五五〇〇十十川川천 나린 물이 太太白白山山산 그림자를 東東海海해로 다마 가니, 찰하 리 漢漢江江강의 木木木木覓覓의 다히고져. 王王程程程이 有 有限한하고 風風景景경이 못 슬미니, 幽幽懷懷회도 하도 할샤, 客客愁愁수도 둘 디 업다. 仙仙선선사랄 띄워 내어 斗斗斗斗우로 向向向向향할샤가, 仙仙선선人인을 차차차려 丹丹丹丹穴穴 의 머므살가.</p>	<p>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내리는 물이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옮겨 ) 가니,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싫증나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를까?</p>

<p>15. 망양정에서의 파도 조망</p> <p>天浬根근을 못내 보와 望洋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서신고. 갖득 노한 고래, 뉘라셔 놀내관데, 불거니 뿔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륙습합의 나리난 듯, 五오월월 長당天浬의 白백雪설은 므사 일고.</p>	<p>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물을 불거니 뿔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오월 드높은 하늘에 백설(파도의 물거품)은 무슨 일인가?</p>
<p>16. 동해의 달맞이</p> <p>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딩하거늘, 扶부桑상 厖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晝난 닷 숨난고야. 珠珠簾렴을 고터것고, 玉옥階계 랄 다시 쓸며, 曉계明明星성 듯도록 窈초 안자 바라보니, 白백蓮蓮年花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세계계 남대되 다 晝고져. 流流霞하酒주 가득 부어 달다려 무론 말이, 英英雄웅 은 어데 가며, 四사仙仙은 誰誰 뉘러니, 아메나 맛나 보아 讖讖 離離 못자 하니, 仙仙山山 東동海해에 갈 길히 毋도멀샤.</p>	<p>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가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상서로운 빛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건어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새벽이 돌아오를 때까지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은 백성에게 은혜가 골고루 미치도록 선정을 베풀고 싶다.) 신선주를 가득 부어 손에 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 사선은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 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물고자 하니,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p>
<p>17. 꿈 속의 선연</p> <p>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淸淸잠을 얼핏 드니, 꿈애 한 사람이 날다 晝은 말미, 그대를 내 모르랴, 上上界계에 眞眞仙仙이라. 黃황庭庭經經-일字자를 엮디 그릇 晝거 두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딸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晝거 보오. 北북斗斗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수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晝겨날 서너 잔 晝후로니, 和和風풍이 翳翳翳하야 兩兩腋액을 추혀 드니, 九九萬萬里리 長長空공에 晝거면 날</p>	<p>(드러난)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 나라의 참 신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 저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올리니, 아득한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통소 소리가</p>

<p>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海에 고로난화, 億억萬만 蒼生生을 다 醉취케 멩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한 잔 하쟈고야. 말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空空中등 玉옥蕭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여 바다를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가인들 엇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 落낙의 아니 비친 데 업다.</p>	<p>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렵풋하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가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p>
--	---